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제 73회 미리 보는 졸업 전시



- 강자연

일상에서 오는 우울함의 감정들에 대하여.

새벽의 시간은 나를 깨어 있게 하며 공허함을 들추어 잠들지 못하게 한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은 내면을 간지럽힌다.

외롭다. 누군가와 함께 있음에도 나는 혼자임을 느낀다. 직면한 감정은 본디 나만의 것이라 홀로 이겨내야 함을 깨달았을 때, 내 깊은 내면과 함께 웅크린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가장 차가운 외로움이라는 감정 수평선 밑바닥 속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내려가 더듬어 발견한 비로소 따듯한 나의 일상에 대하여.

빛 바래고, 작고, 초라한 일상일지도 모른 나의 인생은 가장 사소한, 순간의, 작은 것 들에서, 나의 주변에서만 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자 한다.

내 별 볼일 없고 초라하지만 공유하고 싶은 찰나의 기억 속 한 필름들을.



강자연 / 큰 공허 / 2021 / 캔버스 위에 유채 / 1121 × 1622 (cm)



강자연 / 공허 / 2021 / 종이에 오일파스텔 / 148 × 21.0 (cm)



강자연 / 공허 / 2021 / 종이에 오일파스텔 / 148 × 21.0 (cm)



강자연 / 공허 / 2021 / 종이에 오일파스텔 / 148 × 21.0 (cm)

- 곽지혜

현대인들은 모두 저마다 삶의 고충을 가지고 있다.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그 속에서 치이며 굴복하고 만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한걸음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 역시 그들 중 하나이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낯선 풍경 속으로 도망치는 자아를 표현한다.

그림 속 어디론가 향해가는 인물의 흰 드레스는 자유를 나타낸다. 현실에 지친 이들의 이야기를 그리며 공감을 얻고자 한다.



곽지혜 / 도피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818 × 2181 (cm)

- 권 소 정

해외여행을 하며 느낀 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한국과는 다르게 특이한 행동을 해도 서로에게 무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는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내 작업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를 보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일부분만 보여주면 무엇인지 모른다.

이번 작업은 이런 내용에서 이어진 작업으로 초록색 람보르기니를 그렸다. 그 후 이미지를 잘라 따로 봤을 때는 자연의 색인 초록색을 강조했다. 보는 방식에 따라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인공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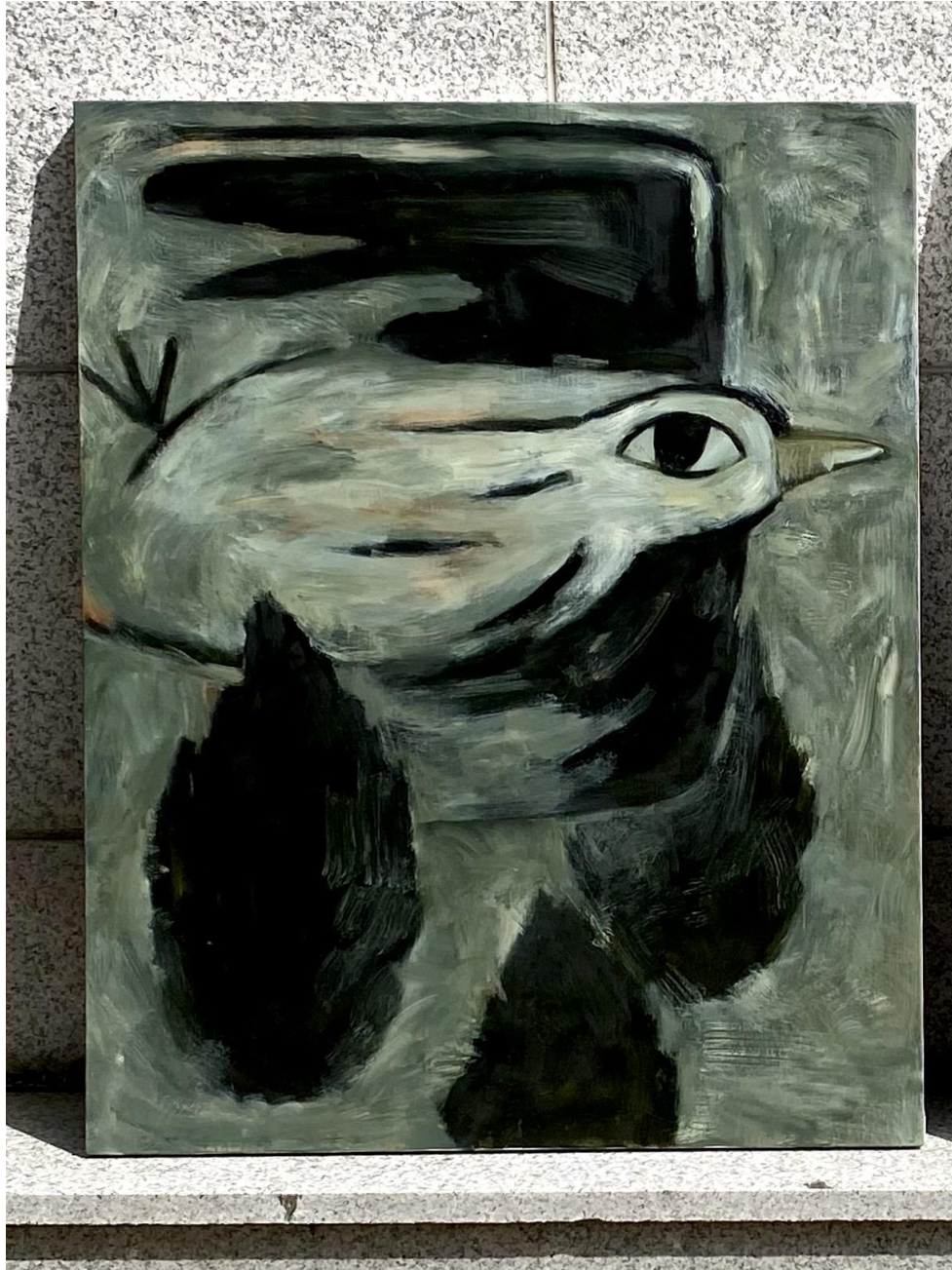
권소정 / 물질의 숲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40 × 200 (cm)

- 김동지 (김덕균)

나는 멀리 떠난다. 떠돌이를 자처하는 삶이다. 어느 곳에도 진정 속하지 못 했던 나의 지난 날들도, 그 시간을 양분 삼아 자라난 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한없이 세상을 떠돈다. 가만히 둘러보면 많은 것들이 흐르는 세월과 바뀌는 계절에 아랑곳 않고 주변을 떠돈다. 하늘에는 이름 모를 별들이 그 아래에서는 온갖 새와 고양이들이. 그리고 이렇게 정처없이 서성이는 이가 분명 나 혼자만은 아닐 것임을 애써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까닭 없이 서글픈 한 사람과 잠시라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떠돌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동지 / 숲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455 × 1121cm



김동지 / 새 / 2021 / 캔버스에 유화 / 909 × 727cm



김동지 / 새 / 2021 / 캔버스에 유화 / 909 × 727cm

- 김민지

인간은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그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조건을 생각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한 선택의 연속인 삶에서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찾기 위한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다. 그 선택의 순간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선택에 구애 받지 않는 진정한 나의 본질은 있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자아정체성(개인에게 주어질 되돌릴 수 없는 기정 사실들, 성장을 함에 따른 다양한 선택영역)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품의 테마는 이러한 어지러운 내면세계 속에서 스스로의 본질을 찾는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민지 / 玄 / 2021 / 영상매체 / 35s

- 김소연

사람들은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 진심이 없고, 무심하며, 때로는 잔인하다. 본대로 믿고, 배운대로 살며, 습득한 대로 미워한다. 그들은 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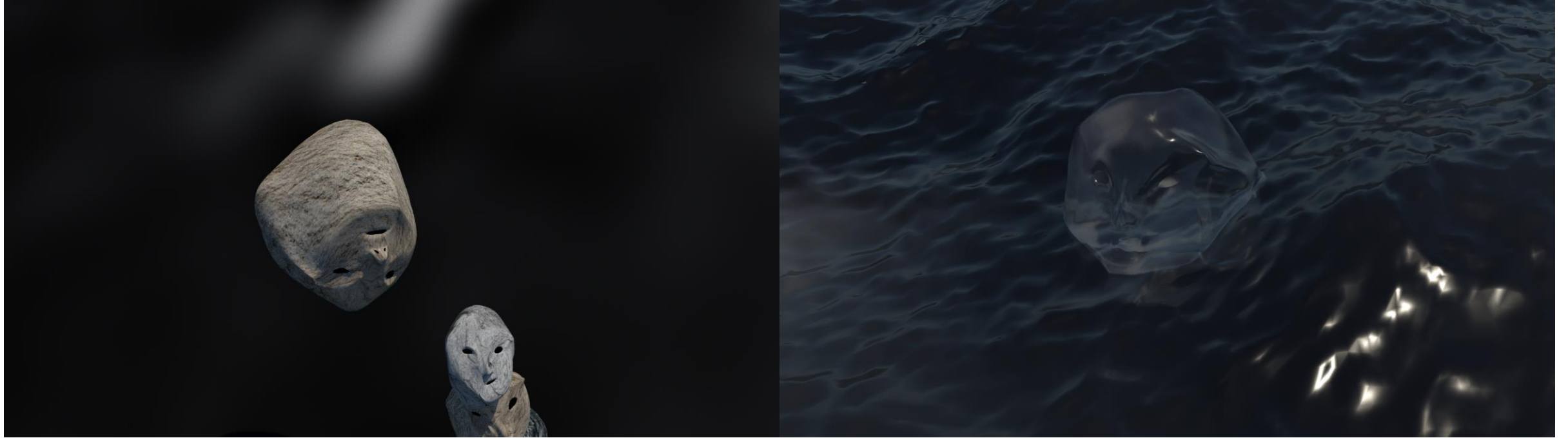
현실은 눈을 떠야만 볼 수 있고, 이상은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다. 그 둘은 양립하기 어렵다.

시인은 생각하는 자고 영원을 만들지만, 그들도 나약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들이 바라보는 낭만은 눈을 감아야만 보인다는 걸 그들은 몰랐던 적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자, 낭만이라는 씨앗을 가슴 속에 심는 시인들이고, 눈은 감고 고개를 든 채 길바닥을 걷는 자, 시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시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라고 믿지만,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모두 명왕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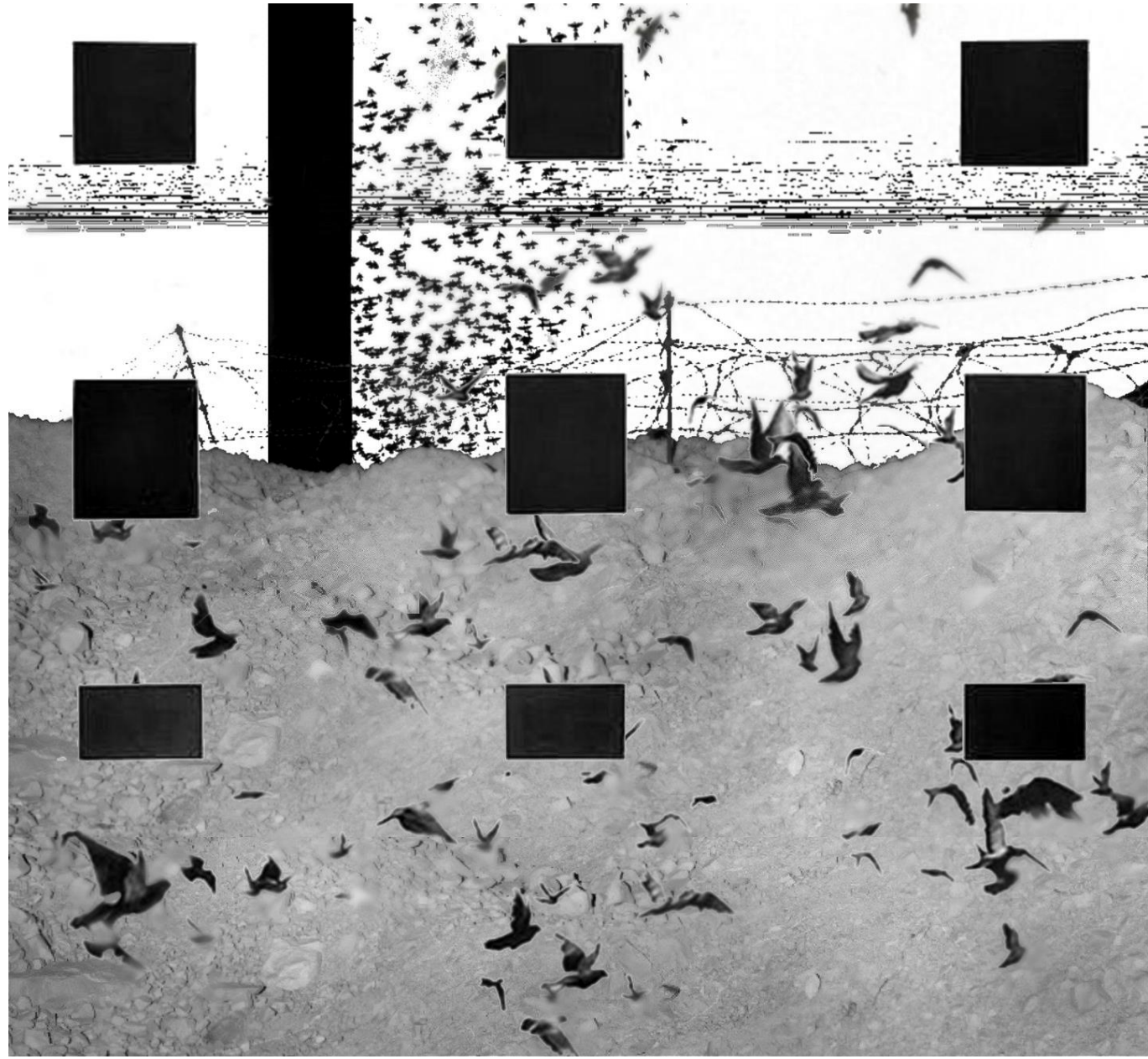
김소연 / 명왕성이 그랬어 / 2021 / 싱글채널 비디오 3dmax / 5' 2"

- 김수지

새장에 갇힌 새만이 자유를 노래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감히 하늘과 날개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다. 내면에서 발현되는 자유를 희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는 현시점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만약 꿈틀거리는 내면의 약동에 귀 기울인다면,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의 요동치는 메아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달갑게 맞이해준다면, 그때야 비로소 하늘 위로 커다란 원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새장에 자신을 가둬 놓은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김수지 / The inside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000 × 803 (cm)



김수지 / 모든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 2021 / 캔버스에 프린트 / 803 x 803 (cm)



김수지 / The inside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000 × 803 (cm)

- 김 신 영

우리들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그렇게 그저 살아가며 지나치고 잊어 버렸던 순간들을 포착하여 나열하고 움직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짧은 영상들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큰 사건이 아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일상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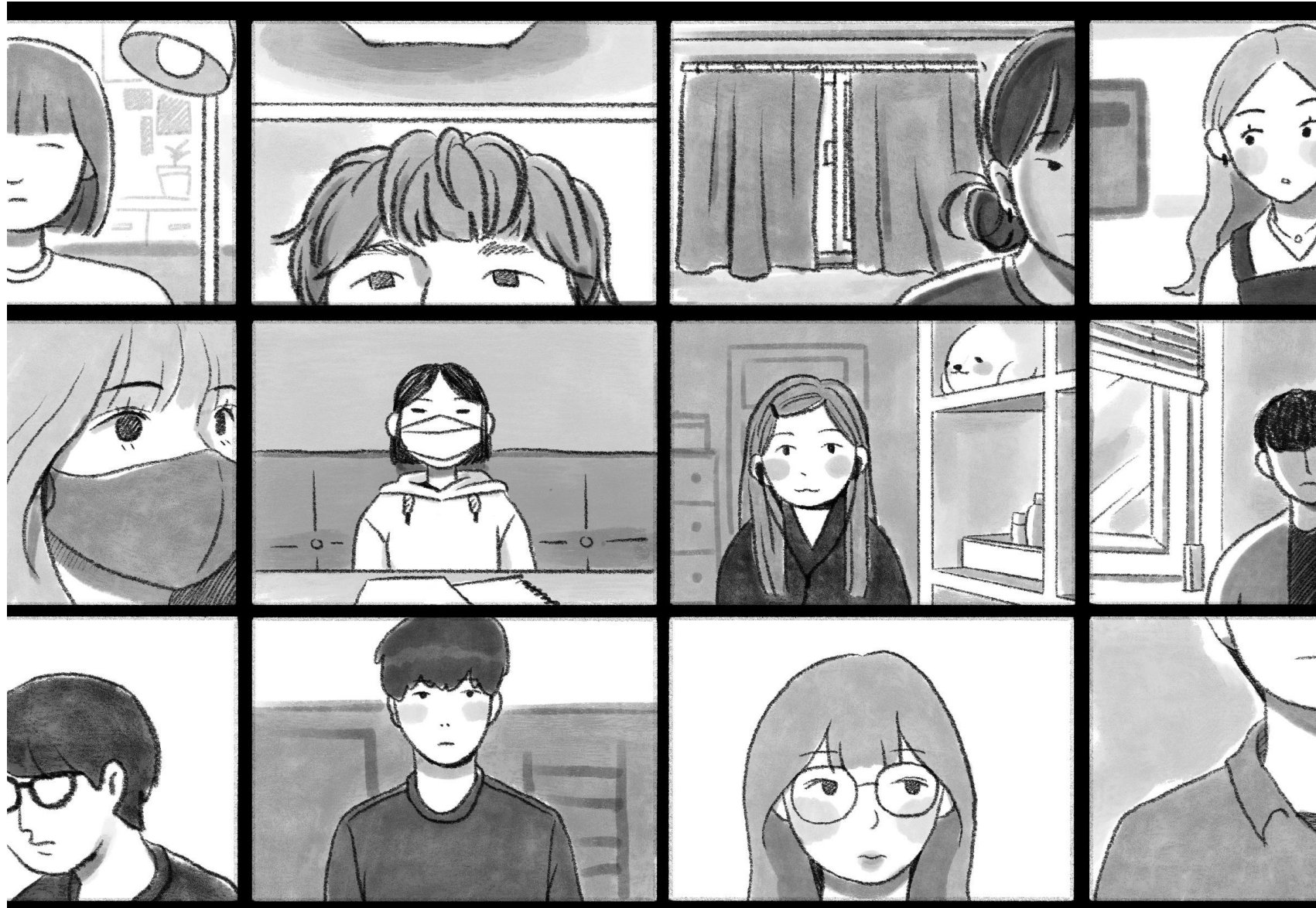
이런 영상들은 루프 형식으로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반복되는 영상은 일상이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삶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임을 의식하게 합니다.



김신영 / 어떤 날(still cut) / 2021 / 영상 / 1' 17"



김신영 / 어떤 날(still cut) / 2021 / 영상 / 1' 17"



김신영 / 어떤 날(still cut) / 2021 / 영상 /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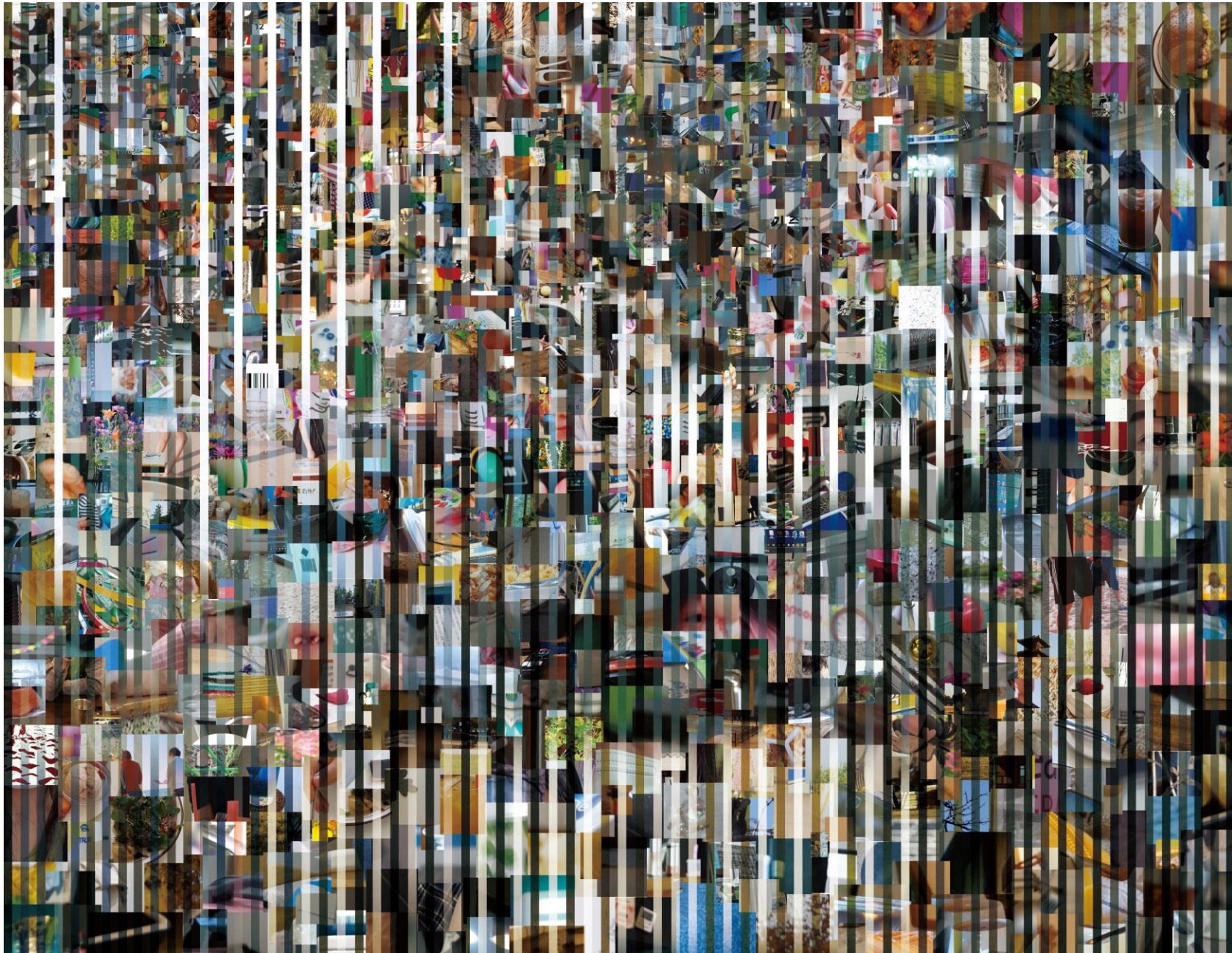


김신영 / 어떤 날(still cut) / 2021 / 영상 / 1' 17"

- 박소량

나에게 있어서 행복은 삶의 최종 목표이며 최고의 가치이다. '행복'이란 감정은 사람마다 느끼게 되는 매개체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를 찾고 그것을 실현할 때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때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한 프레임에 자신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하는 절대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매개체가 사회로부터 주입된 것인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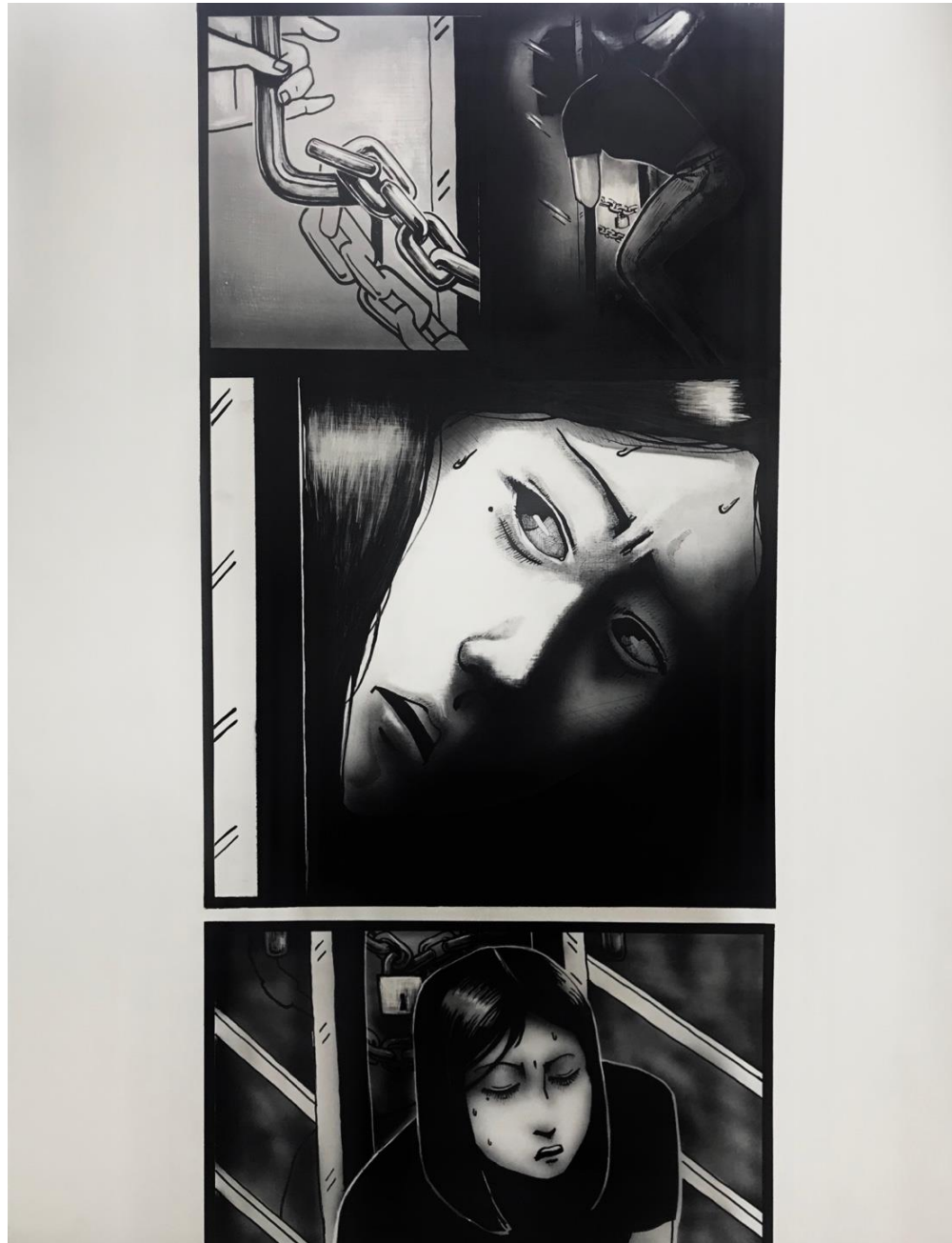
물질과 이념 등 만물의 본질은 결국 상대적 성질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이념은 이미 등장한지 오래되었지만, 정작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 가치관과 이념뿐 아니라, 바라보는 사물, 대상까지도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본질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같은 대상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식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각자가 받아들인 것만이며, 실제의 본질이라는 것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박소랑 / 무제 / 2021 / 캔버스에 디지털프린트 / 41 × 53 (cm)

- 박형진

인터넷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한다. 사건 혹은 지식의 일부분만을 교묘하게 편집해 제공된 정보를 습득하곤 자신이 마치 전부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의 단편이 이용자 임의로 짜집기 되고 변형된다. 이러한 현상을 웹툰의 '스크롤 뷰'의 특성을 사용해 나타내고자 한다. 웹툰 또한 스크롤이 멈춘 순간 컷이 멈추고 극의 기승전결과과는 별개로 관람자는 임의로 내용을 재구성하게 된다.



박형진 / 기어가다 / 2021 / 캔버스에 아크릴 / 1455 × 112 (cm)



박형진 / 괴다 / 2021 / 캔버스에 아크릴 / 130 × 130 (cm)

- 배희원

지난 200년간 우리는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 살아왔으며, 의식은 계속해서 개선되어왔다. 하지만 인종 간의 차별은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이다. 흑인의 인권 문제 및 아시아인들을 향한 편견은 전 세계적인 시위를 일으킬 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나는 언제 자리를 잡았는지도 모른 채 박혀있는 각 인종에 대한 깊은 인식을 꺼내어 성찰하는 시간을 주려 한다.

1- 우리 중 일부는 인간의 존재를 '상품'처럼 치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21세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준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가장 발달 된 인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누가 동물 혹은 물건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2- 인종차별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우리의 일상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나의 시선에서 가볍게 풀어낸다.



배희원 / All lives matter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65 × 1726 (cm)



배희원 / 제 3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2021 / 판넬에 연필 및 과슈 / 96 × 1032 (cm)

- 안주는

공상 상상 망상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빠른 속도로 어떤 대상으로부터 연상되고 또 연상되어 어느새 머리 속에서는 그가 주인공이 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공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그저 스쳐 지나가기도, 뇌리에 남기도 한다.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각에 가득한 나지만 현실의 나는 평범하다.

머릿속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고, 번뜩이고 사라지는 내 공상들을 기록·공유하고 있다.

나를 자극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상 속에서 특정하고 확실한 쓰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본래의 용도를 무시한 채 상상의 소재로 사용되며 그들은 쓸모를 상실한다. 그 덕분에 나의 사건에서 더욱 유용하게 기능한다. 쓸모없는 쓸모가 보다 낫선 장면을 만든다.

공사현장의 기자재들, 그물이나 텃밭의 지지대, 버려지고 녹슨 물건들.
눈길을 주지 않던 것들에게 잠시 시선을 빼앗긴 뒤로 나에게 고요한 일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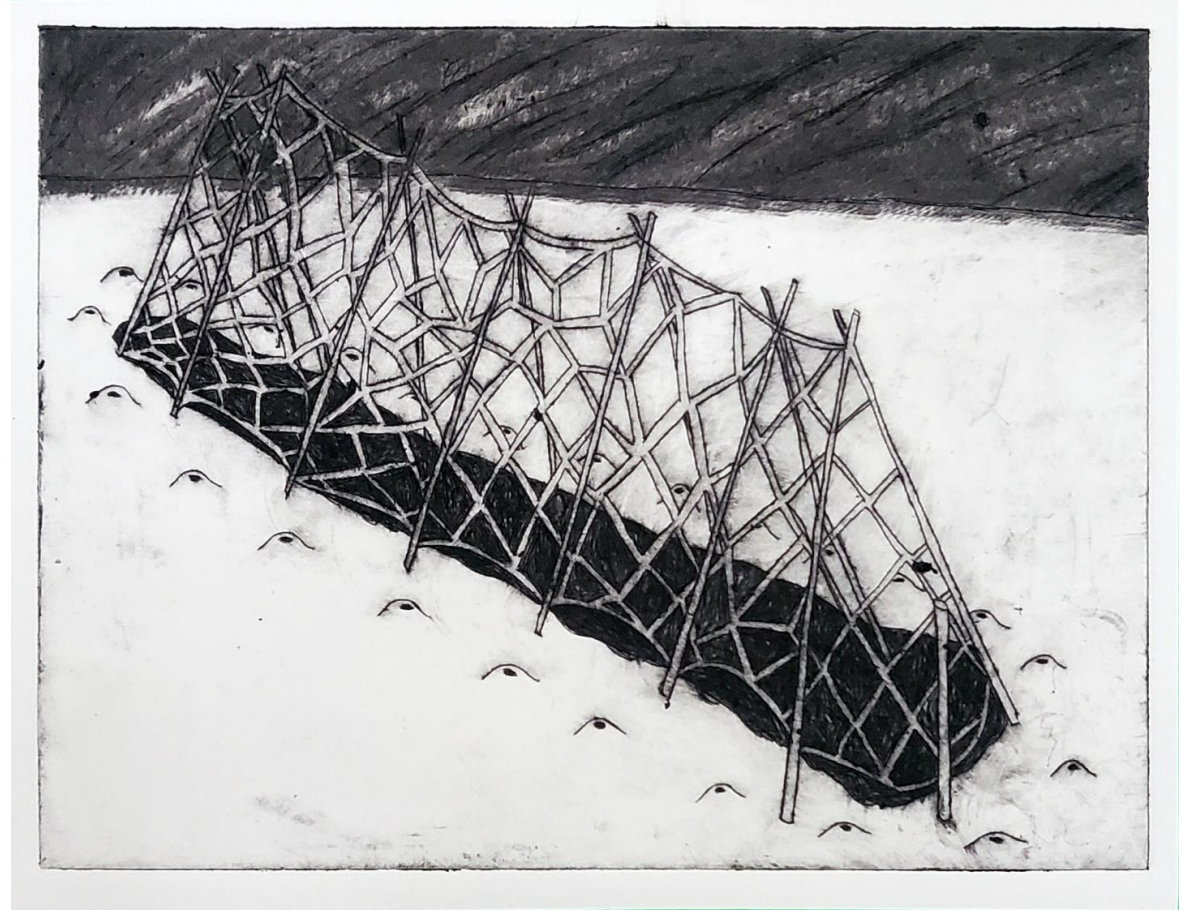
안주은 / 모든게 요동치면 다시 시작하자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303 × 162 (cm)



안주는 / 겉과 안을 뒤집는 것 / 2021 / 캔버스에 아크릴, 모델링 컴파운드 / 455 × 455 (cm)



안주은 / 내 반려 / 2021 / 캔버스에 아크릴 / 727 × 606 (cm)



안주은 / 목숨이 다할 때 까지 / 2021 / 판화지에 드라이포인트 / 13 × 17 (cm)



안주은 / 폐가에는 도주자들이 산다 / 2021 / 캔버스에 아크릴 / 803 × 100 (cm)

- 연희선

나의 영상은

가상 공간과 실재 공간, 두 세계를 교차 시키며, 유한한 공간과 무한한 공간, 가상과 실재의 경계를 이야기한다.

‘경계’ 작업은 나와 마주하는 개인 공간의 부재에서 시작되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과 현시에서 무시 되었던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어두운 방, 적막, 램프, 책, 따뜻한 차, 이 5가지 요소가 공간에 주어진다면 ‘나’와 쉽게 마주할 수 있게 된다. 되풀이 되는 두 세계의 교차를 일상처럼 받아들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을 축적하고, 생성하고, 극복하고, 역전한다. 가상과 실재, 이 둘을 양분하지 않지만 미장센으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 이 작업은 가상과 연동하고 또 해체하는 매체로 각기 다른 조명과 사물로 내면의 세계를 호출한다. 또한 불이 꺼진 가상 공간에서는 사유의 공간으로 작용되어 형용 되지 않았던 무한한 감정들을 체화한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형용 되어도 스스로를 잘못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 태도, 이 태도로 자신의 내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호출이 자신을 빠르게 회복 시켜줄 최고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러니한 것은 언택트 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간이 없다는 것.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가상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그로부터 어떤 시공을 생성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이 공간은 현실도피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종의적 의미가 있다.



연희선 / 경계 / 2021 / 비디오 / 1280 × 720 pix / 5' 44"

- 오혜란

매일 반복되고 같은 곳을 오고 가는 생활 속에서 나는 혼자 걷던 길거리에서 보이던 것 들에서 특별함을 찾았다. 아파트 단지 내에 나름대로 울창하게 심어진 나무들이 눈에 띄었다.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부는 바람에 흔들리고, 내리는 비와 눈을 받아내고, 햇빛에 비치면 빛나는 나무의 모습. 그리고 작은 잎들끼리 흩어지고 뭉치며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흐트러진 모양에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예쁘게 보였던 그 순간의 모습을 담아보려 했다.



오혜란 / 매일 빨간 잎들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455 × 1121 (cm)



오혜란 / 나무1 / 2021 / 캔버스에 유화 / 530 × 455 (cm)

- 유진영

도시에서의 삶을 살아갈수록 내면에 불안감이 자리 잡는 이유는 이 사회가 불안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집값 폭등, 노동 가치의 하락, 과열된 SNS 유행, AI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 정체성의 모호함 등으로 도시에서는 고독함과 공허함, 두려움이 느껴진다. 내 집 마련은 닿을 수 없이 멀게만 느껴지고, 가짜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지니는 타인과는 정서적 교류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향 서울은 그리움의 장소이자 고난을 이겨낸 삶의 찬란함을 기대하는 곳이다. 노동과 생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처지는 이러한 감정들을 더욱 신랄하게 느끼게 한다. 나는 이러한 도시를 그리며, 이 사회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포착하고자 한다. 내 삶의 기록임과 동시에 이 시대의 기록을 자처하고 싶다.

그림의 색감은 새벽에서 영감을 얻었다. 새벽은 모두가 잠든 고독한 시간이기도 하며 아침의 직전에 있다. 공허함과 희망이 공존하는 듯한 시간대가 곧 도시의 본질과 같다고 느꼈다.



유진영/ 밑 / 2021 / 캔버스에 아크릴 / 97 × 1455 (cm)



유진영 / 멀리 / 2021 / 캔버스에 아크릴 / 97 × 1455 (cm)

- 유채영

그러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는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돌을 깎고 조각을 조각하며 부자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바랍니다.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될 놈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업에서 저의 그 확신을 드러내려 했고,
그래서 제 그림 속 코끼리 수호신들은 항상 화면 밖의 저와 눈을 맞추고 제게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줍니다.
제 작업에서의 코끼리는 저를 자극하는 존재이자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힘을 주는 수호신입니다.



유채영 / 무제 / 2021 / 나무 판넬에 유화 /
376 × 45(cm)

유채영 / 믿으면 힘이 될 것임을 압니다 /
2021 / 액자에 유화 / 404 × 51.7 (cm)

유채영 / 눈을 마주하세요 / 2021 / 달마도
에 유화 / 47.1 × 37 (cm)



유채영 / 깎아 만든 코끼리상3 / 2021 / 돌 / 8 × 45 × 2 (cm)

유채영 / 부자를 위한 노래를 불러라 / 2021 / 석고판에 유화 / 21 × 26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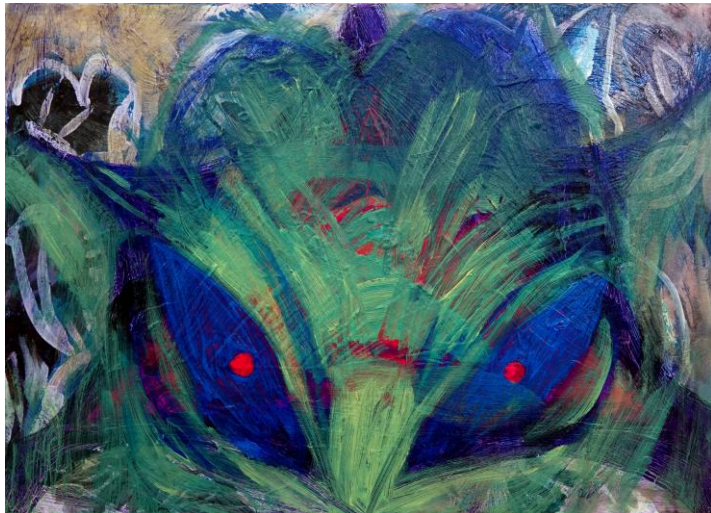
유채영 / 부자가 되거라 - 북두칠성과 코끼리신 / 2021 / 달마도에 유화 / 675 × 48 (cm)



유채영 / 염원이 담긴 코끼리상1 / 2021 / 전복 껍데기 / 8 x 5.1 x 15 (cm)

유채영 / 염원이 담긴 코끼리상2 / 2021 / 전복 껍데기 / 5 x 7.6 x 15 (cm)

유채영 / 확신을 품어라 / 2021 / 동판에 유채 / 30.6 x 37 (cm)



유채영 / 무제 / 2021 / 한지 판넬에 유화 / 25 x 33.4 (cm)

유채영 / 깎아 만든 코끼리 눈 / 2021 / 돌 / 3 x 3.8 x 1.5 (cm)



유채영 / 무제 / 2021 / 시멘트에 흑연 / 27 × 155 (cm)

유채영 / 손 끝의 힘을 사용해 / 2021 / 돌과 조개 껍데기 / 가변설치

유채영 / 손 끝의 힘을 사용해2 / 2021 / 돌과 조개 껍데기 / 가변설치

유채영 / 손 끝의 힘을 사용해3 / 2021 / 돌과 조개 껍데기 / 가변설치



- 이 동 화

1. 날 울리는 것들 (가제)

날 울리는 것들은 날 기쁘게 하는 것들이다.

한눈에 봐도 슬픈 것, 같은 처지에 놓여 부둥켜 우는 것들은 연민과 동정 그리고 동병상련의 위로를 주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나를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들은 날 기쁘게 하는 것들이다. 밝은 멜로디
의 노래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아름다운 경치들 모두 아름답다. 그러나 그만큼 나를 울게 한다.

2. 과거는 기억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그 기억의 주축에는 내가 있다. 여러 기억들이 쌓여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나를 증명 한다. 각자의 기억들 중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기억마저 없다면 그 속의 나는 '공백'이 되어버린다. 나는 이러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다.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 내가 존재하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탐구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동화 / 날 울리는 것들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16 × 91 (cm)



이동화 / 파편의 기억들 / 2021 / 캔버스에 유화 / 지름 110 (cm)

- 이상희

작가는 회화와 패션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화폭에 담았다. 화려한 패션 런웨이 속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림의 재료로 삼는다. 어떠한 의도를 담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캔버스 앞에 섰을 때, 작가의 행위는 의도와는 다른 우연한 형상으로 표출되며 이는 예상 밖의 화면을 만들게 된다.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패션을 평면 회화로 옮길 때 작가의 작품은 패션과 회화의 경계에 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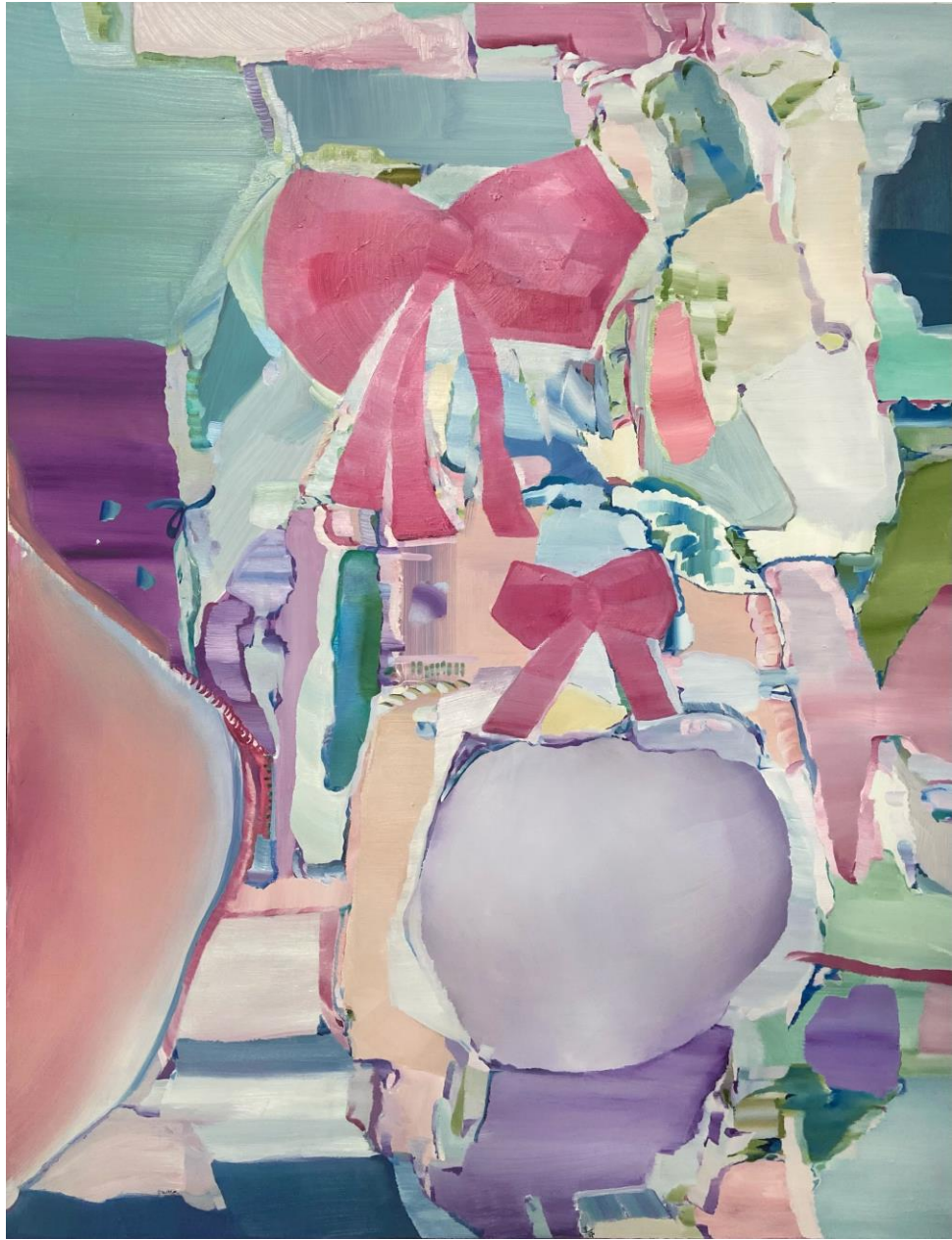
바넷 뉴먼의 <vir heroicus sublimis> 에서 보여지는 띠는 양쪽의 면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데,

작가의 작품 속 옷을 구성하는 다양한 장식물(지퍼, 스티치, 리본 등)은 작업의 상징물로 치환되고 이는 회화의 확장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우연을 동반한 그리기의 불완전한 과정을 온전히 수용하고 본능적인 감각으로 작업에 임할 때,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회화와 패션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가, 입체에서 평면, 평면에서 입체로 다시 순환될 수 있는가를 실험한다.



이상희 / Breaking A Ribbon 001 / 2021 / 캔버스에 유채 / 145 × 97 (cm)



이상희 / Breaking A Ribbon 002 / 2021 / 캔버스에 유채 / 145 × 97 (cm)



이상희 / Cut 1 / 2021 / 캔버스에 유화 / 53 × 53 (cm)



이상희 / Cut 2 / 2021 / 캔버스에 유화 / 53 × 53 (cm)

- 이 소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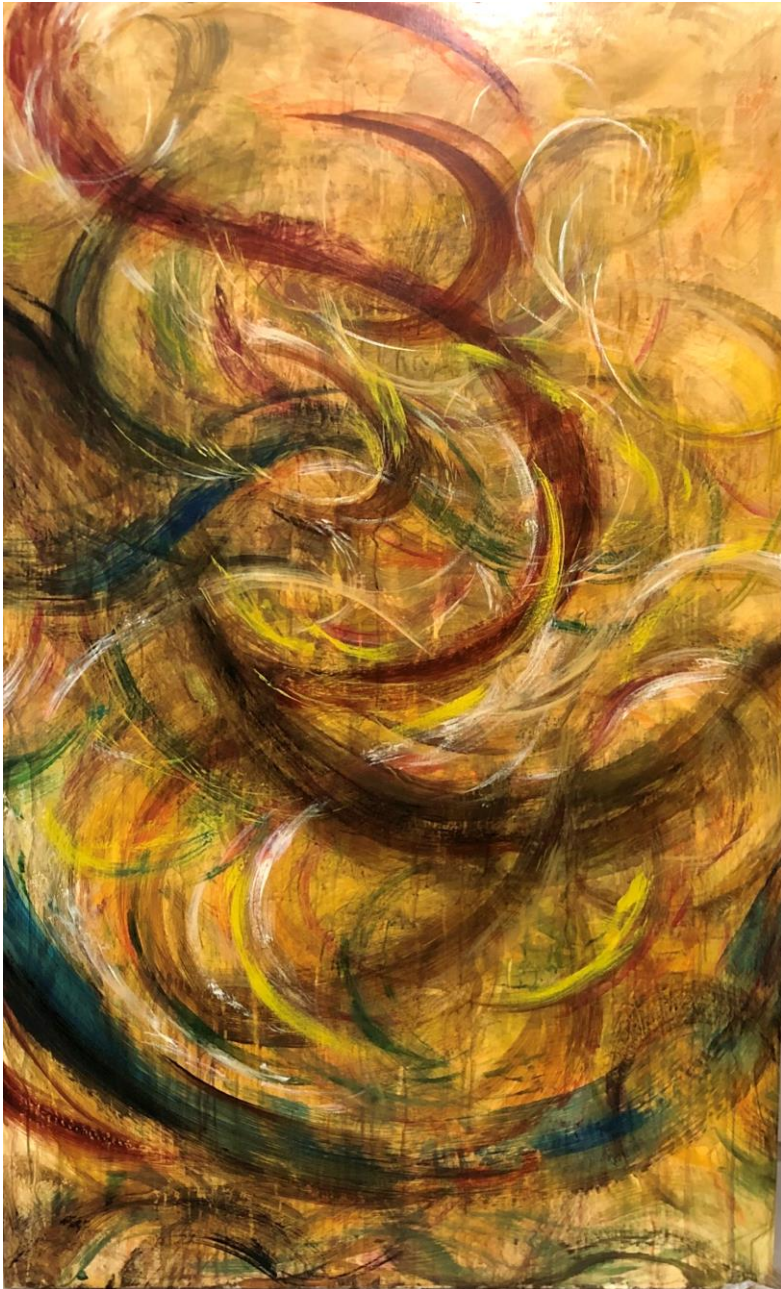
예술(藝術)이란 뿌리는 모두 동일한 맥(脈)을 지니지만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들의 예술 활동은 형태만 다를 뿐 결국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동일한 점에 있어 저는 다른 분야 예술에 관해 많은 흥미를 느낍니다.

그중 가장 저 자신과 상반되는 분야의 예술, 공연예술을 감명 깊게 무대를 감상하고, 그들과 같은 맥락을 가진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그들 분야의 예술을 화폭에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붓과 물감으로 무대 위 모습들을 저만의 형태와 색으로 표현해내며, 저에게 각인된 이미지들을 요동치는 듯한 붓터치로 생동감을 불러 일으키듯이 종합하여 한 화면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무대를 가득 메우는 국악기와 어우러지는 무용수들의 몸짓들 그리고 그들의 몸짓에 따라 무대 위 선과 색을 더하는 한복, 이들의 조화는 관객에게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청각, 시각과 더불어 무대에 울리는 진동의 촉각까지 많은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이러한 무대를 바라보았을 때 느낀 풍부한 여러 감각들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냅니다. 이를 표현함으로써 무대 앞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또한 이러한 감각을 상기시켜주고자 이러한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소영 / 무대 위 펼쳐지는 선과 색 그리고 울림 (1), (2) / 2021 / 판넬에 아크릴 / 각 1455 × 894 (cm)

- 이유정

어린 시절의 나는 창작 활동 시 과감하게 생각을 표현했지만, 규율에 순응한 이후로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다. 흰 캔버스 앞에 서면 막막함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되었다.

어린 나에게 인형은 인형 놀이를 통한 상상력의 표출 대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인형에게 있어서는 생명력을 잃은 그 모습이,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과감함을 잃은 나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귀엽기만 하던 인형은 잘 통제되어 있던 도로를 파괴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현실 속에 나타나 낯선 풍경을 만든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눈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규율화되고 사회화된 시각을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갈망이다.



이유정 / 창조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622 × 1303 (cm)



이유정 / 공상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168 × 803 (cm)

- 이 한 비

자라나는 욕망의 모습을 조용히 자라나는 식물들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철창과 같은 화분에서 자라나는 것은 식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와 뼈다.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사(死)초들은 많은 희생과 고통을 먹고 자란다.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들은 아름답게 자라나는 식물처럼 보인다. 온실은 다른 지역의 식물을 가져와 적합한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이며, 인간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온실의 속성은 인간들이 최상위 포식자인 위치를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다른 생명들을 착취하고, 이들을 살육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도록 한다. 또한 인도적 도축, 동물 복지라는 말로써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과도 비슷하다..

환경파괴와 공존의 문제들은 더 이상 인간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 습관과 쾌락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마주하는 것은 하나의 종족이 아닌 동식물, 인권까지도 아우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한비 / 덩쿨뱀 / 2021 / 혼합재료 / 50 × 35 × 65 (cm)



이한비 / 병아리화분 / 2021 / 혼합재료 / 26 × 17 × 17 (cm)



이한비 / 뽕난초 / 2021 / 혼합재료 / 28 × 28 × 35 (cm)

- 이 홍 범

‘Materialism’

획일화된 학교, 사회, 언론, 대중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학습 받아온 우리들은 자연스레 물질만능주의적 사회에 물들어가며 ‘빈’과‘부’, ‘갑’과‘을’에 대한 선입견적 시각을 갖게 되고, 이는 곧 세대,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현대인들은 물질만능주의적 소비 형태를 취함으로써 허영적 안도감만을 추구하고,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한 뉴스들을 흔히 접하고, 그 속에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상실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되어져간다. 자동차는 일상에서 지위, 신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이를 소재로 부정적인 현대사회의 모습을 표현해보고자 한다.

각기 다른 브랜드와 형태들의 낡고, 해체된 폐자동차들은 모두 현대사회의 부정적 모습인 물질만능주의적, 허영적 가치에서 해방된 평등한 상태로 존재하며, 겹겹이 쌓여 사회 공동체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변형시키고, 재구성하여 현대사회의 부패한 왜곡된 선입견적 화면을 연출하였다. 이로써 감상자들에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점들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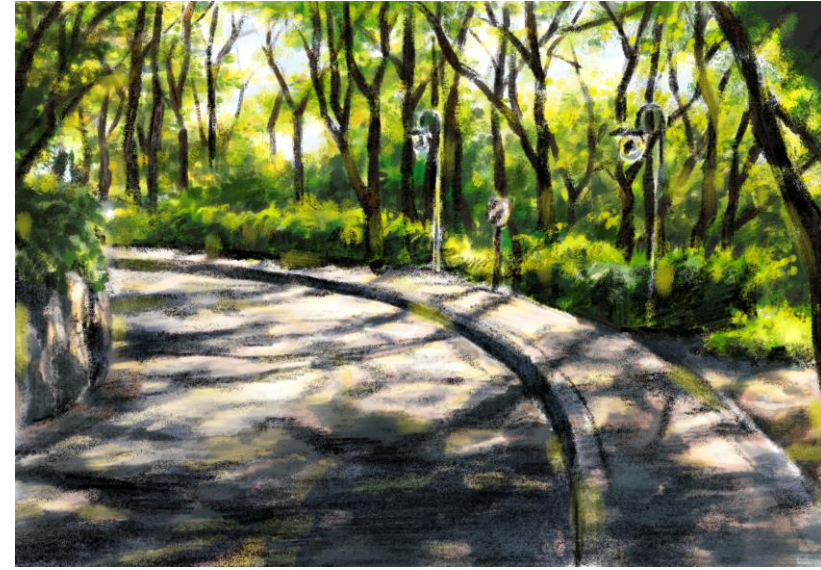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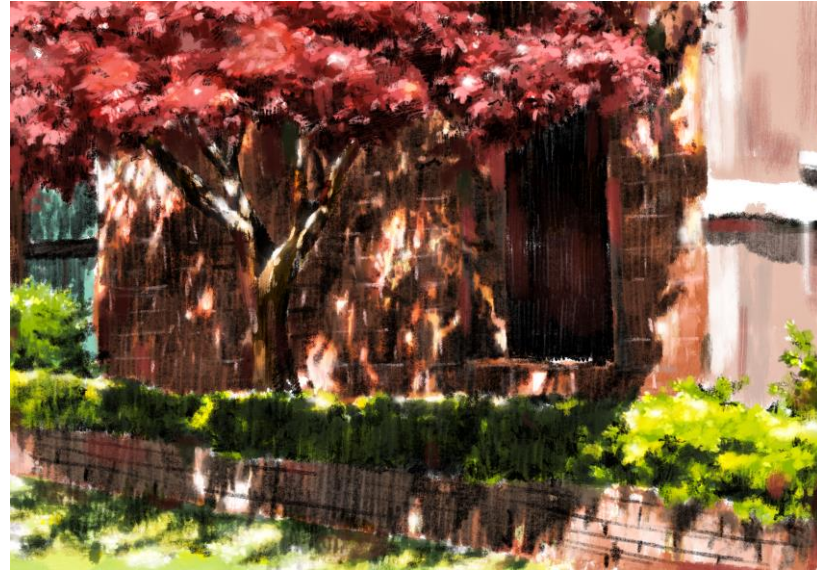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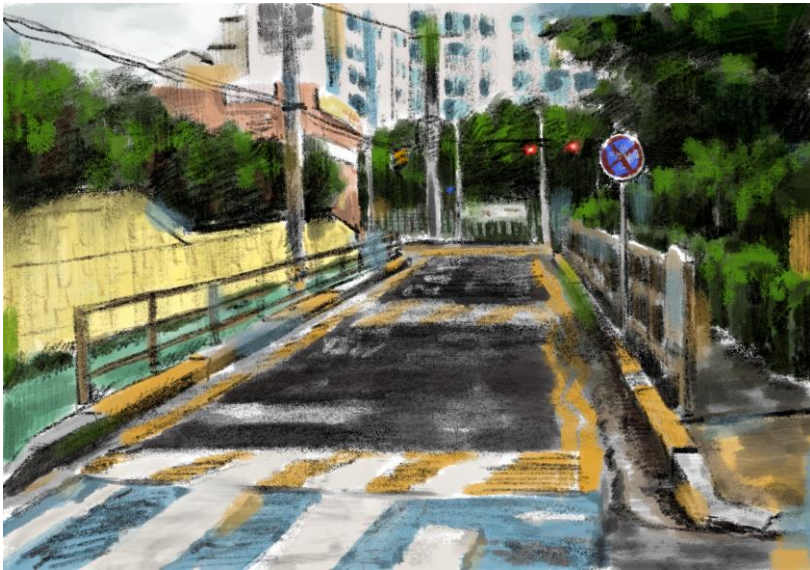
이흥범 / Materialism Series I / 2021 / 캔버스에 유화 / 80 × 130 (cm)

- 장소 은

특별한 장소는 기억을 포함한다.

그 안에서 오감을 통해 그 장소를 받아들이며 감각작용을 한다. 이 감각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감정들을 작동시킨다.

하지만 때때로 공간을 3차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감각이 과거의 환기로부터 시작되는 순간 장소는 입체적 개념이 아닌 평면적 개념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장소들을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는 과정들을 통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소를 전통적인 2차원의 형태로 재현하며, 과거의 감각을 되새김질하게 한다. 3차원의 입체 개념에서 z축이 빠진 평면의 작업에 시간이라는 새로운 z축을 제시하여 짧지만 긴 여운을 주는 독특한 감각활동을 보여주고자 한다.



장소은 / Still / 2021 / 디지털페인팅, 영상 / 5'30"

- 전서영

우리는 항상 어딘가로 달려나가고 있다. 목표가 있든 없든,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고 우린 계속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 또한 그 사람들 중 하나이기에 작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싶었다. 음악으론 현재 사람들의 상황을 나타내되, 그래도 작업을 볼 때 만큼은 안정감이나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운드로 담아내었고, 설치물은 모든 이의 미래는 한치 앞도 모르며 규칙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들리에의 '불규칙함'으로 표현했으며 그 상들리에를 밝힘으로써 미래에 대한 긍정적임.' 모든 이의 미래는 밝고 예쁘게 빛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전서영 / The FUTURE / 2021 / mixed media / 115 × 115 × 21.7 (cm)

- 정구현

슈슈는 열 다섯 살이며 시츄이다.

노견인 그를 바라보며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그가 눈이 침침하다는 것이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슈슈에게 노안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그녀는 잘 보이지 않아 힘들어 할 것 같다며 걱정하셨다. 그리고 슈슈 스스로도 많이 불편해 보였다. 간혹 앞에 문이 열렸는지 알 수 없어 부딪히기 일쑤였고, 그러한 일들이 겹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생겼다. 결국 바닥에 엎드리는 시간이 늘었다.

그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후각이다. 귀 또한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슈슈는 킁킁 냄새를 맡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꾸준한 '노즈 워크'로 후각은 건실한 듯 하다.

나는 불편한 육신임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슈슈의 모습을 포착하여 작품에 담아냈다. 슈슈의 모습을 빌어 나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궁극적으로 나의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공감과 사랑, 그리고 연민의 마음을 증폭시키고 싶다.



정구현 / 노안 / 2021 / 캔버스에 유화 / 97 x 1622 (cm)



정구현 / 유토피아 / 2021 / 캔버스에 유화 / 30 × 140 (cm)



정구현 / 헤테로토피아 / 2021 / 캔버스에 유화 / 30 × 140 (cm)

- 정희진

<헉헉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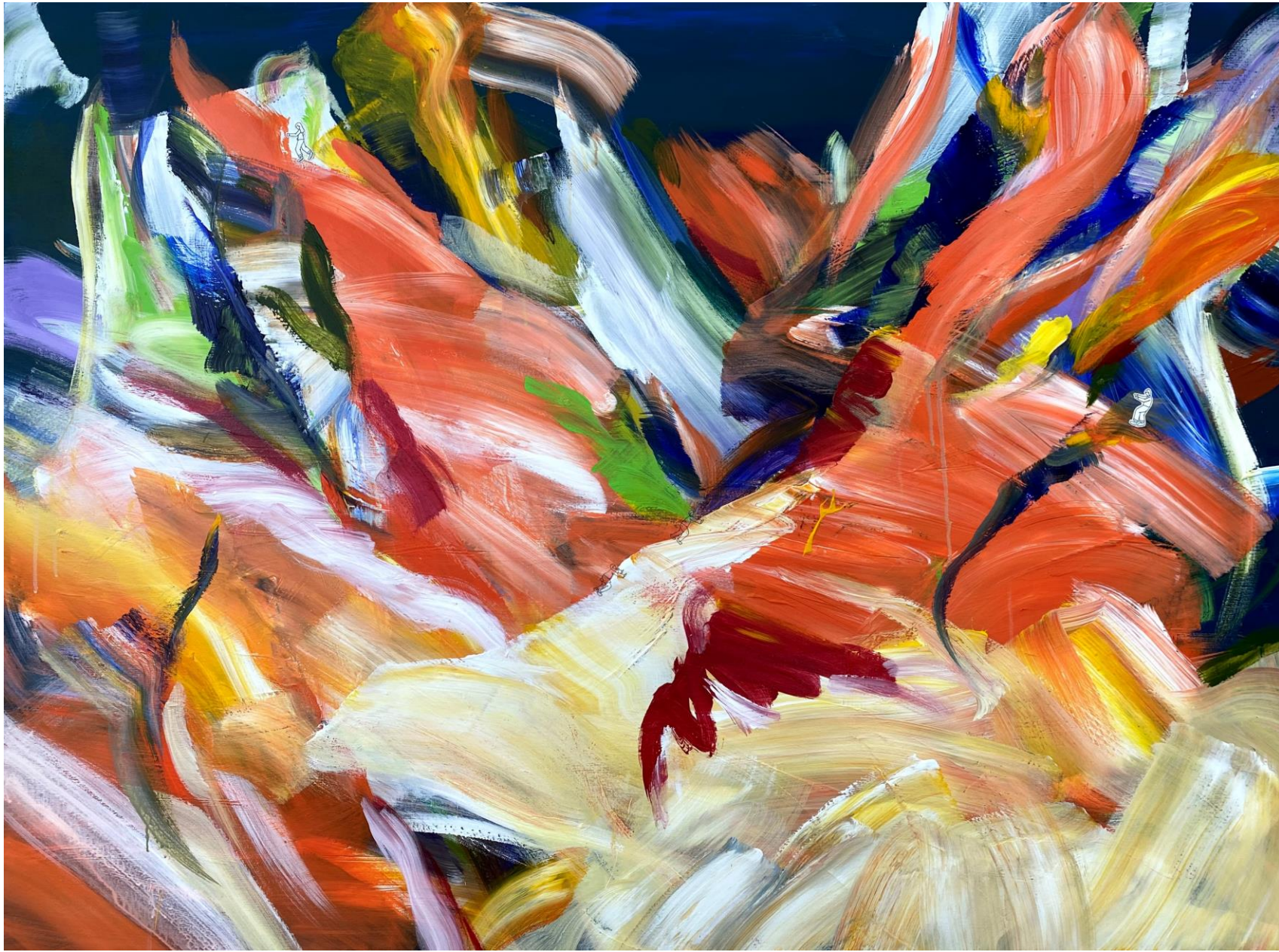
여러 입시제도, 취업, 승진 등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다룬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계속 헤쳐나가고 향상되는 모습을 갖춰야 하지만 그 사이 사회는 또 발전한다.

편견을 깰 용기가 없었기에 사회가 정해 놓은 박자에 맞추어 그저 열심히 달려왔다. 하지만 이런 사회의 틀이 싫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 구조에 대해 <헉헉 시리즈> 작업을 진행한다.

사회 속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뒤에 추상작업은 자연경관이 느껴져 한 편의 풍경화 같기도 하며 속도감이 느껴져 사회 발전의 모습이 느껴지게 진행하였다. 그 속에 작은 꿀라주는 이런 시회에 녹아들어 한 걸음 한 걸음 헉헉거리며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정희진 / 학학학 / 2021 / 캔버스에 아크릴 / 1168 × 18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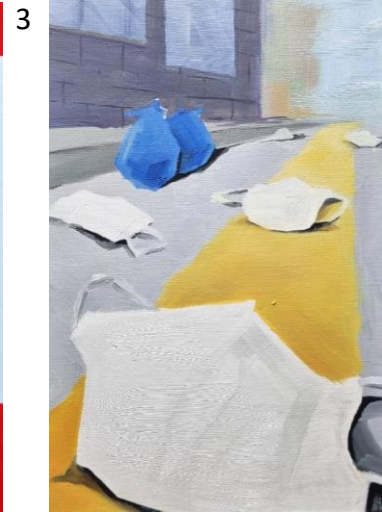
정희진 / 헉헉헉헉 / 2021 / 캔버스에 아크릴 / 97 × 1303 (cm)

- 최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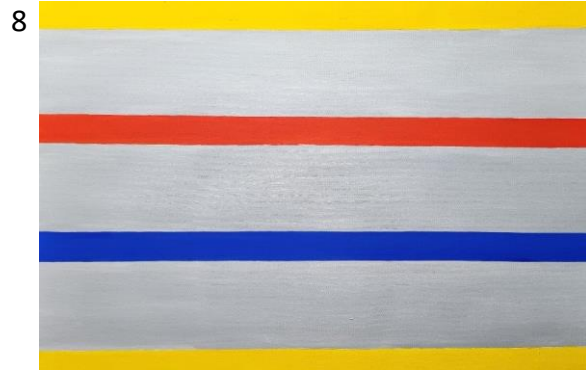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의 통제 하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2020. 1. 20~> 시리즈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달라진 일상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금방 종결될 것만 같았던 '팬데믹'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으며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이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생기 없고 우울한 현 상황은 마치 색이 다 빠져버린 흑백사진과도 같아 보인다.

이번 작업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상 속의 활기찬 모습이나 다채로운 색감의 풍경들을 기록하며 잊고 지냈던 긍정적인 감정들을 색을 통해 이끌어내고자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이미지를 사용했다.



1. 최지나 / 옷걸이 / 2021 / 캔버스에 유화 / 334×242cm
2. 최지나 / 폐업2 / 2021 / 캔버스에 유화 / 455×379cm
3. 최지나 / 쓰레기 / 2021 / 캔버스에 유화 / 334×212cm
4. 최지나 / 거리두기3 / 2021 / 캔버스에 유화 / 530×334cm
5. 최지나 / 홍대거리 / 2021 / 캔버스에 유화 / 530×409cm



6. 최지나 / 출근길 / 2021 / 캔버스에 유화 / 455 × 334 (cm)

7. 최지나 / 가족 / 2021 / 캔버스에 유화 / 334 × 242 (cm)

8. 최지나 / 폐업 / 2021 / 캔버스에 유화 / 606 × 409 (cm)

9. 최지나 / 식당 / 2021 / 캔버스에 유화 / 409 × 24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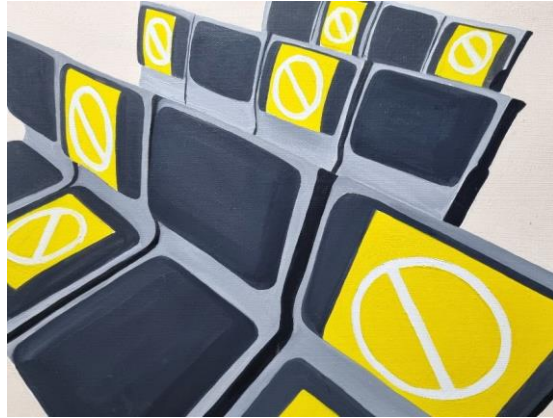
10. 최지나 / 거리두기 / 2021 / 캔버스에 유화 / 334 × 212 (cm)

11. 최지나 / 등굣길 / 2021 / 캔버스에 유화 / 530 × 409 (cm)

12



13



14



15



- 12. 최지나 / 지하철 / 2021 / 캔버스에 유화 / 33.4×24.2cm
- 13. 최지나 / 거리두기2 / 2021 / 캔버스에 유화 / 40.9×31.8cm
- 14. 최지나 / 비대면 배송 / 2021 / 캔버스에 유화 / 53.0×45.5cm
- 15. 최지나 / 친구 / 2021 / 캔버스에 유화 / 33.4×24.2cm

- 최 현 지

나에게 하얀색이란 첫인상과 같은 색이다.

하얀색으로 얼굴 전체를 칠한 여자의 모습은 남들이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인식하는 모습과도 같다.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모습, 늘 당당해 보이는 모습,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아는 모습, 그러나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강한 인상. 과연 이 첫인상들이 그녀의 진짜 모습일까?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면 과연 진정한 나의 모습은 뭘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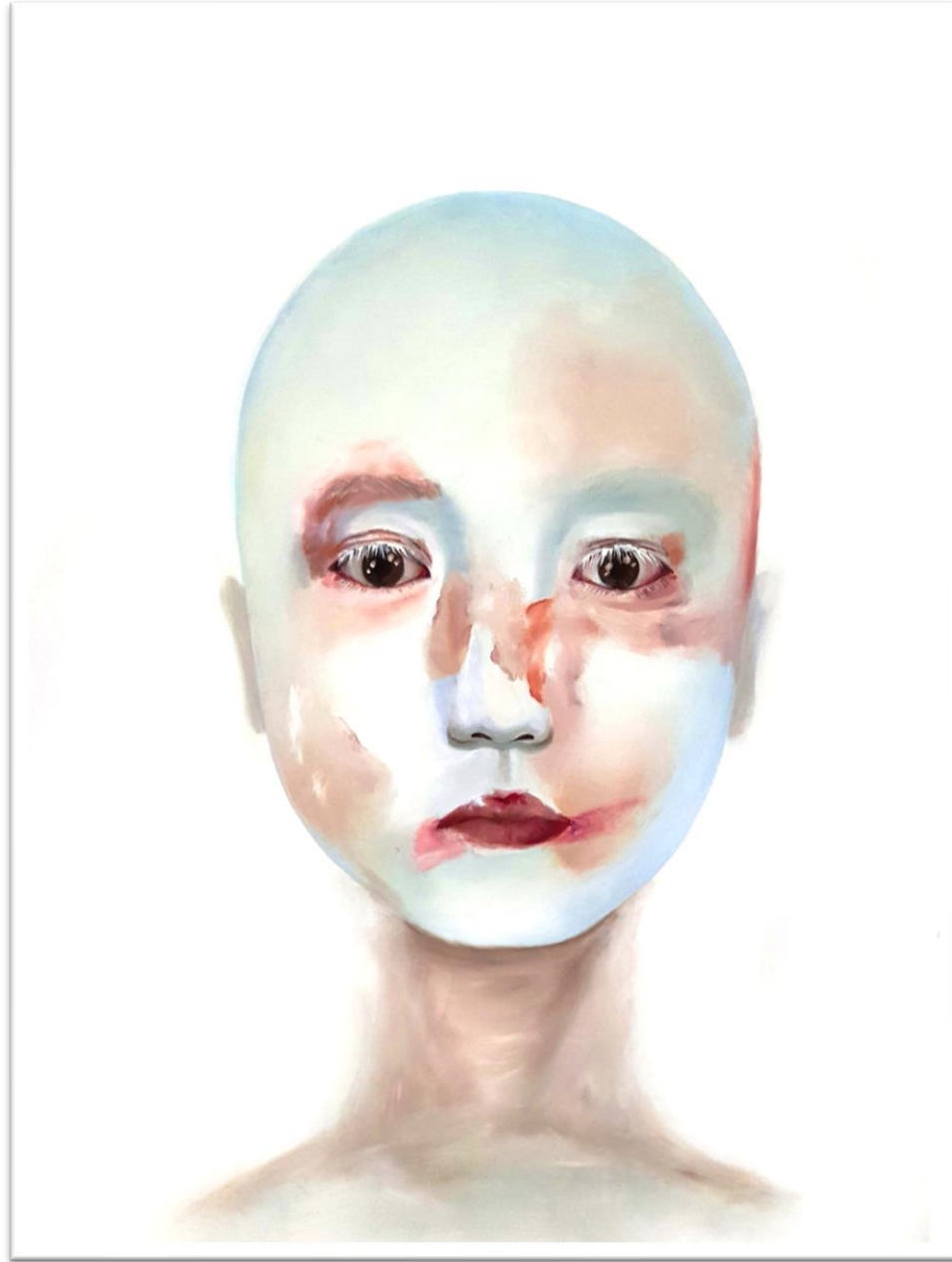
나를 알면 알아갈수록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나' 의 모습은 과연 '진짜 나' 일까?

나는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이던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도,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도 모두 사랑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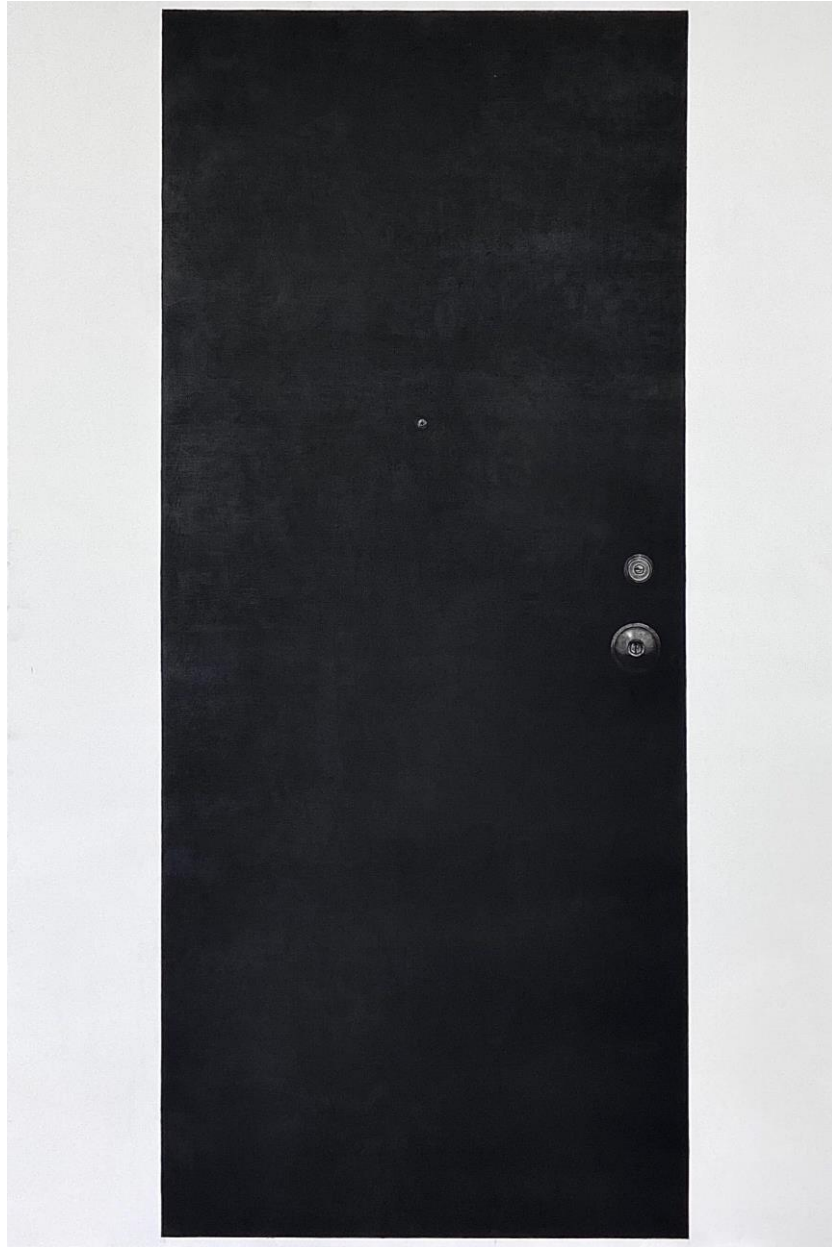
최현지 / 하얀색 증명사진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455 × 1120 (cm)



최현지 / 얼룩진 증명사진 / 2021 / 캔버스에 유화 / 1455 × 1120 (cm)

- 한 동 국

나에게 첫 죽음은 어릴 적 살던 아파트에서의 할아버지의 죽음이다. 가족의 죽음 목격 이후 나는 집에 홀로 들어 가야 하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당시를 떠올리며 나는 문과 창문을 삶과 죽음의 경계로 설정하였다. 아파트 시리즈 중 <현관문> 작업은 어린 시절의 내가 문 앞에 서서 느꼈던 공포를 떠올리고 그 공포를 극복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된 작업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 끝에 죽음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한동국 / 현관문 / 2021 / 캔버스에 목탄 / 1939 × 1303 (cm)

- 허지원

괴물이라 불리는 아이들을 그린다.

이 들은 강하고 멋지다.

환경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를 진화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 방법이었으며 그 생존 방법의 과정이자 결과가 이들의 외형이다.

그들이 태생적으로 가졌던 특이점 혹은 기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태생적 차이는 그들에게 특별한 무기, 방패가 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最) x의 수식어를 가진다.

이들은 무궁무진한 진화 가능성을 가졌고 세상을 받아들임에 있어 개방적이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성과 방어기제를 조심해야 한다.
난 이들을 창조하고 발견한다. 그리고 연구한다.

이들은 분명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 공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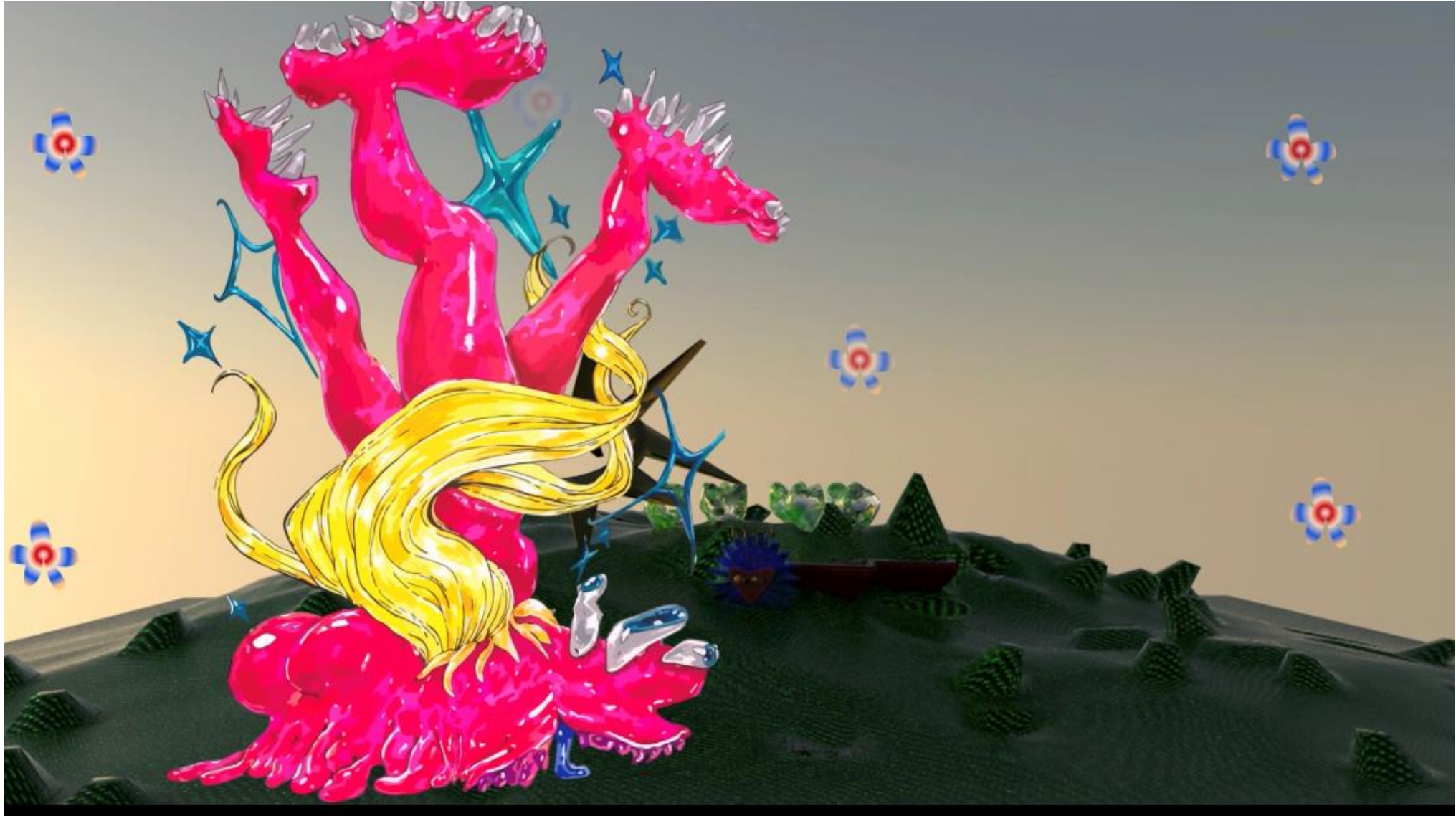
허지원 / 거뭉하십니까 / 2021 / 캔버스에 아크릴 / 227 x 158 (cm)



허지원/ 자랑 / 2021 / 종이에 수채화,수성펜 / 36 × 253 (cm)



허지원 / 시속1034km! / 2021 / 판넬에 수채화 / 1168 × 803 (cm)



허지원 / 에데롱 동산 / 2021 / 일러스트, 에프터이펙트 / 30'

https://www.instagram.com/tv/CPhv2_Op7QF/?utm_medium=copy_link

- 환동은

의문을 갖지 않으면 환상은 현실과 다를 바 없다.

현실은 수많은 전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전제들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현실은 전혀 다른 세계로 변화한다. 그들은 각자의 상상력을 더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새로운 환상의 세계로 만들어, 그곳을 탐구하는 모험을 떠난다. 현실과 닮아있지만 분명히 다른 환상세계와 현실세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환상세계는 현실에서 느낀 의문점을 시작으로 탄생하여 현실에서의 상실감을 채워준다. 제 3자가 본다면 허황된 꿈으로 이뤄진 도피처일 뿐이지만, 이는 다시 현실세계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된다.



황동은 / 환상 세계 / 2021 / 캔버스에 유화 / 각 1455 × 894 (cm)